

유엔 인권총회, 여성문제 상정 움직임

1991.12.20

20여개국 참가, 10만인 서명운동

세계 여성들과 합심해 성폭력에 항의하고 유엔 인권총회에 '여성 문제'를 정식안건으로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'10만인 서명운동'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.

〈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(회장 김계정)〉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서명운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2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.

'10만인 서명운동'은 '여성 · 폭력 · 인권'을 주제로 6월 미국 뉴저지 국제 지도력 센터에서 2주 동안 열렸던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20개국 23명의 여성들이 채택한 실천내용 가운데

하나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전화 한우섭 교육부장, 신혜수 교수 등이 참가했다. 이 회의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여성 대표들은 성폭력 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'성폭력 추방주간 선포', '서명운동' 등을 결의한 바 있다.

현재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참가해 작성 중인 서명지는 1차적으로 내년 2월에 함께 모아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〈유엔인권총회 준비위원회〉 측에 전달된다.